

車업계 ‘夏鬪 비상’ 속 쌍용차, 10년 연속 무분규 매듭

쌍용차, 국내 최초 임단협 타결
합의안 투표 74.6% 찬성 ‘가결’

현대·기아차, 임단협 교섭 결렬
한국지엠 노조, 휴가 후 파업진행
임단협 지각 르노삼성, 난항 예상

국내 완성차 업계가 임금 및 단체협상으로 노사 갈등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쌍용자동차가 임단협 타결의 시작을 알렸다. 자동차업계는 교섭결렬과 쟁의 행위 돌입 등 일제히 파업을 예고하며 올해 협상에 난항을 예상하고 있지만 쌍용차의 이번 임금협상 타결은 업계에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임금협상 잠정합의 후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74.6%의 찬성률로 가결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2019년 임금 협상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 지난 2010년 이후 10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끝낸 셈이다.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임금협상은 15차 협상에서 도출된 잠정합의안이 투표 참여조합원(3311명)의 74.6%(2471명) 찬성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은 임금부문은 기본급 4만2000원 인상, 경영위기 타개 동참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별도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이 포함됐다.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은 최저임금제도와 맞물려 현행 짝수 월에 각 100%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월 할로 지급하는 것이다. 쌍용차는 이를 통해 자금 소요계획을 일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직원은 고정적인 임금을 토대로 생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

게 된다.

반면 쌍용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노조와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이달 12~13일 쯤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각각 70.54%와 82.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각각 사측과 지난 5월과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30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갔지만 현재 모두 결렬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인상으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2만3526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 기본급 9만1580원의 100%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상되는 3만1946원에 대해 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도 격차해소 특별요구 3만1946원을 포함한 기본급 12만3526원과 2018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기본급 3만8000원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

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실적 반등에 성공한 현대·기아차는 '신차 효과'가 기대되는 일부 차종의 생산차질 우려 가능성이 부담이다. 노조가 협상 시한으로 계획하고 있는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한 달간 노사 협상이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하계 휴가가 끝나오는 7월 기점으로 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군산 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쉐보레 국내 철수설 등 논란에 휩싸였다. 반면 지난 12월 설립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명 규모의 연구, 개발 인력으로 구성된 법인은 외국인 직원과 신입 직원들 비중이 높아 기존 한국지엠 노조원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별도 법인으로 분리돼 있어 파업 참가 명분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르노삼성은 지난 6월 1년 만에 2018년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2019 임단협'이라는 과제와 또 다시 마주하게 됐다. 임단협 타결에 난항이 예상되는 업계 관측과 함께 올해에도 임단협 지각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5G 설계부터 실시간 현장점검까지 LG U+, 품질측정앱 세계최초 개발

이노와이어리스와 공동 개발
마젠타로 전파방사 3차원 측정

LG유플러스가 5G 네트워크 설계에서 시공 및 실시간 현장 품질점검까지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LG유플러스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안테나 방향각 측정기 '마젠타'와 현장 실시간 품질점검이 가능한 5G 모바일 품질측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세계 최초로 개발·상용화했다고 4일 밝혔다.

통상 기지국장비를 시공한 후 5G 품질 확인을 위해서는 노트북에 데이터 케이블로 5G 단말기를 연결하고, 전용 프로그램을 실행해 5G 신호의 세기, 신호 품질, 속도 등을 측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연결 방법이 어렵고 번거로운 품질 측정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다.

LG유플러스가 국내 업체인 이노와이어리스와 함께 개발한 5G 모바일 품질측정 앱은 5G 스마트폰에 앱 형태로 설치해 신호세기 측정,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측정, 실패호 분석 등이 가능하다. 측정 결과는 자체 개발한 품질 분석 시스템(ESS)에서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신호가 불량한 포인트를 찾아 품질 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지국 시공을 지원하는 안테나 방향각 측정기 마젠타는 기지국 철탑 주변에서 기존 나침반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기술로 완성된 세계 최초 방위각 계측장비다. 해시계 원리를 응용한 마젠타는 국내 업체인 피제이피테크, 센서케인이 공동 개발하



LG유플러스 직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5G 모바일 품질측정앱으로 기지국에서 신호세기,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등을 측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고 LG유플러스가 상용화했다.

그동안 장비의 안테나 방향각은 지도와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10~20도로 상당히 커 설계와 동일한 시공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마젠타를 활용하면 5G 기지국의 전파방사 방향을 3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어 5G 기지국 안테나 방향 및 각도를 1도 이내의 오차로 완벽한 시공이 가능하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셀 설계 전문 프로그램인 에이톨과 지역 속성을 고려해 자체 제작한 전파모델을 활용해 전국망 설계를 완성했다. 셀 설계는 전파가 고객 단말기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지국 장비의 위치와 안테나 방향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정교한 설계가 되지 않는 경우 기지국 간 신호가 중첩되어 간섭이 발생한다. 기지국간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커버리지 홀이 생겨 서비스가 불량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현대상선 선박운항 정시성 ‘세계 1위’

덴마크 ‘시인텔’ 정시성 분석
현대상선 91.8%로 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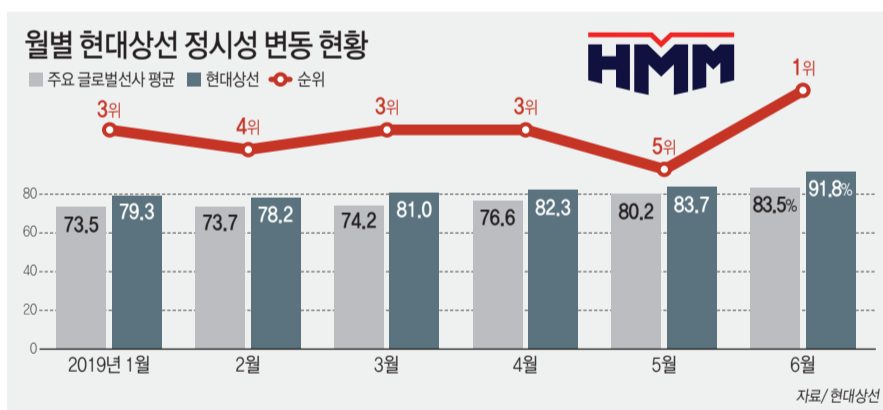
현대상선은 컨테이너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선박 운항 정시성 부문에서 지난 6월 90%대에 진입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발표한 덴마크 해운분석기관 ‘시인텔’의 선박 운항 정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6월말 기준 현대상선의 선박 운항 정시성은 91.8%로 전월 대비 8% 포인트 상승했다.

현대상선은 조사 대상 상위 15개 글로벌 선사들의 평균 운항 정시성 83.5%보다 무려 8.3%포인트 높았고, 순위는 전월 세계 5위에서 1위로 올랐다.

현재 현대상선과 해운 동맹(얼라이언스) 관계인 머스크는 88.1%(4위), MSC는 86.4%(7위)에 그쳤다.

이번 조사결과는 글로벌 주요항로인



미주·구주·대서양·남미·지중해 등 전항로의 거점항만에서 정시성을 종합 평가한 수치이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7년 이후 화주 신뢰 회복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컨테이너 선박 입출항 스케줄 준수를 통한 화주들의 만족도 제고와 정시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7년 8월 정시성

85.4%로 사상 첫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도 82.9%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시성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해운기업으로서 한국 해운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LG U+, 호텔·골프·인강 특별할인

U+멤버스 ‘추천 브랜드 쇼핑’ 출시
28일까지 여름맞이 경품추첨 행사

LG유플러스는 할인·결제·적립 통합 서비스 ‘U+멤버스’에서 ‘추천 브랜드 쇼핑’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여름맞이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브랜드와 제휴해 특별 할인 혜택과 쇼핑

물 자동 로그인 등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온라인 호텔 예약 브랜드 ‘아고다’, 골프쇼핑 브랜드 ‘골프존마켓’, 영유아 식품 브랜드 ‘베베쿡’, 온라인 여학 브랜드 ‘파고다인강’, 레저 티켓 구매 브랜드 ‘기프트티켓’, 모바일 상품권 브랜드 ‘쿠프마켓’ 등 총 6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온라인 여학 브랜드 ‘파고다인강’에서는 무제한 강의 수강이 가능한 ‘올인원 슈퍼패스+파고다인강’ 이용권을 선착

순으로 최대 6만원 할인한다. 패키지 및 단일 강의는 최대 12%까지 할인 가능한 쿠폰을 제공한다.

골프쇼핑 브랜드 ‘골프존마켓’에서는 골프용품 10%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골프 클럽 구매시 최대 60% 할인한다.

LG유플러스는 신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추천 브랜드쇼핑을 이용하는 U+멤버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 300만원 상품권, 국내 호텔 1박 이용권, 애플 에어팟2, 서울랜드 파크이용권, 영화관람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김나인기자 silkni@